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3				제 () 선택
----	--	------	--	--	--	---	--	--	--	----------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장차 공직에 나아갈 자네에게 몇 가지 당부할 것이 있네. 무엇보다 도(道)로써 얻은 부유함과 높은 지위가 아니라면 거기에 머물지 말게. 무릇 군자는 도를 얻지 못할까 근심하지 가난을 근심하지 않는다네. 부디 도에 뜻을 두고 덕을 지키며 인(仁)에 의지하고 육예(六藝)를 두루 닦아 백성을 편안히 하도록 하게.

- ① 인위적 규범을 버리고 만물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따른다.
- ② 명상에 전념하여 해탈을 가로막는 애욕을 완전히 끊는다.
- ③ 불로장생을 이루기 위해 악행을 멀리하고 선행을 쌓는다.
- ④ 일체의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자유를 누린다.
- ⑤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하고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절제와 용기, 정의 등 영혼과 관련된 모든 것은 그 자체로는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지만 지혜나 어리석음이 더해짐으로써 이롭거나 해롭게 된다. 그러므로 덕이 이로운 것이 틀림없다면 덕은 일종의 지혜이어야 한다.

- < 보 기 >
- ㄱ. 선을 알면서도 악행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 ㄴ. 무지의 자각은 영혼을 수련하는 궁극적 목적이다.
 - ㄷ. 덕을 갖추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 ㄹ. 이성을 발휘하여 덕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내려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우리는 쾌락을 출발점으로 삼아 모든 것을 선택하거나 회피하며, 쾌락을 기준으로 모든 좋은 것을 판정한다. 쾌락은 행복한 삶을 이루는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 분별 있고 훌륭하며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 쾌락적인 삶을 살 수 없고, 쾌락적인 삶을 살지 않고서 분별 있고 훌륭하며 정의롭게 살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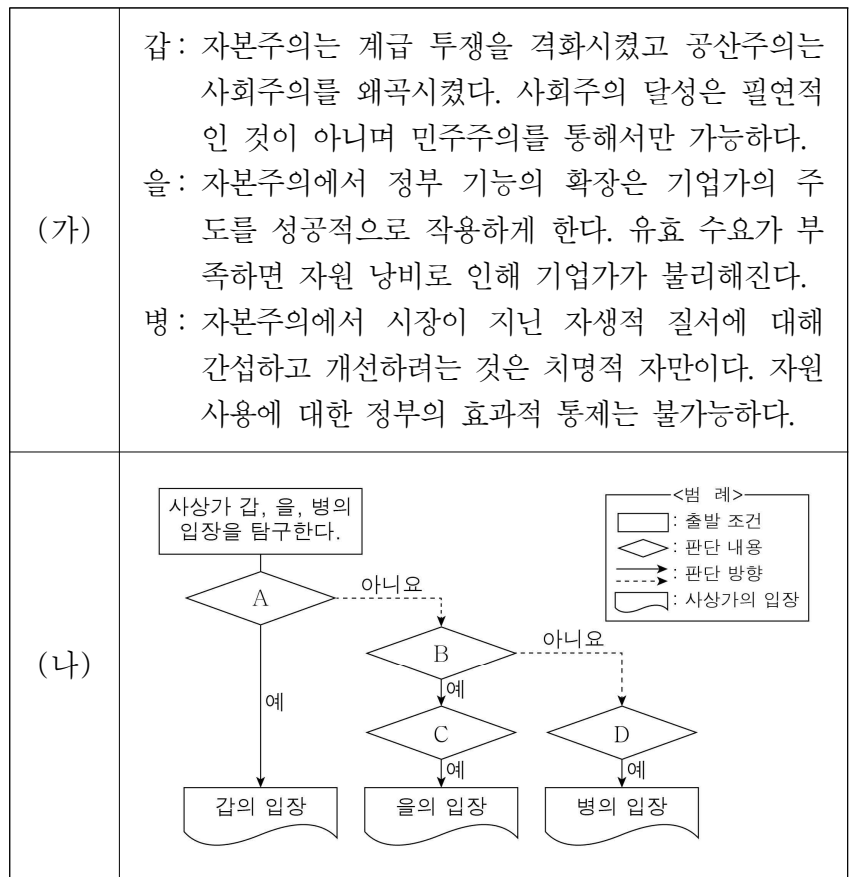
- 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공적인 삶에 헌신해야 한다.
- ② 참된 쾌락을 실현하는 데 이성적 숙고는 필요하지 않다.
- ③ 덕은 쾌락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바람직한 가치를 지닌다.
- ④ 자연적 욕구는 비자연적 욕구와 달리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⑤ 심신의 고통이 부재한 상태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4.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궁한 도(道)를 터득하여 무(無)의 경지에서 노닐어라.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을 다하고 이득을 추구하지 말라. 언제나 마음을 텅 비울 따름이다. 지인(至人)의 마음 씀은 거울과 같다. 가는 것은 가는 대로 두고 오는 것은 오는 대로 둔다. 변화에 호응하되 감추는 것이 없다.

- ① 오감(五感)을 통해 얻은 지식을 쌓아 도를 체득해야 한다.
- ② 외물에 속박되지 않는 절대 자유의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
- ③ 만물을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두 평등하고 우열이 없다.
- ④ 생사를 기쁨이나 슬픔으로 여기는 것은 자연을 거스른 것이다.
- ⑤ 자기 마음을 비우고[心齋] 사물의 자연적 본성을 따라야 한다.

5.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 D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보 기 >
- ㄱ. A: 자본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폭력 혁명은 정당한가?
 - ㄴ. B: 투자의 사회화는 시장 경제 원리의 효율을 저해하는가?
 - ㄷ. C: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은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가?
 - ㄹ. D: 자유 경쟁의 효율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허용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6. 다음을 주장한 현대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자유는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측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법의 지배는 시민이 자유롭게 살고 자의적 의지에 예측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시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덕성이 정부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 < 보 기 > —
- ㄱ. 간섭의 부재는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다.
 - ㄴ. 개인의 자유 향유와 시민적 덕성 함양은 양립 가능하다.
 - ㄷ. 시민의 정치 참여는 국가 공동선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 ㄹ. 자연권으로서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법의 지배는 불필요하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로서 자연을 관찰한 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진리를 얻으려면 인간은 지성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을: 인간의 이성은 실험적 지성이며 이성의 작동은 경험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지성은 형성되는 과정에 있으며 실험의 결과를 관찰하여 지성을 무단히 개선해야 한다.

- ① 갑: 인간의 지성은 완전하여 선입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② 갑: 새로운 지식은 귀납법이 아니라 연역법으로써 획득된다.
- ③ 을: 초월적인 존재를 탐구하는 형이상학은 모두 무가치하다.
- ④ 을: 지식은 오류 가능성을 지니며 끊임없이 수정되어야 한다.
- ⑤ 갑과 을: 철학적 탐구는 과거의 모든 경험과 단절되어야 한다.

8.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 현대 서양 사상가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과 신에게 공통인 이성에 따라 일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성에 따라 행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을: 인간은 자유 의지를 잘못 사용한 죄로 불행으로 이끌려 가고 있다. 모든 선한 것의 이데아인 신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병: 인간의 본성을 구상하는 신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무엇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주체성이며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의미이다.

- ① 갑: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신적 본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② 을: 선한 의지를 지닌 자는 신의 은총 없이도 신을 향유한다.
- ③ 병: 신의 도움 없이 자유 자체를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 ④ 갑과 을: 신을 알기 위해서 이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⑤ 을과 병: 진정한 행복의 실현은 신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다.

9.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격물(格物)' 두 글자를 성인(聖人)이 말한 것은 사물에 나아가 이해하게 하고자 함이다. '격(格)'은 완전하게 하는 것이니, 2~3할 정도 궁구한다면 그것은 아직 격물이 아니다. 반드시 10할을 다 궁구해야 격물이다.
 을: '치지(致知)' 두 글자는 성학(聖學)에서 비밀히 전해져 온 것이다. 어떤 것이 봉양인지 아는 것은 '지(知)'이지만 아직 치지는 아니다. 반드시 그 지를 지극한 데까지 확충해야 치지이다. 치양지(致良知) 밖에 다른 학문은 없다.

- < 보 기 > —
- ㄱ. 마음과 이치는 본래 하나이며 둘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한가?
 - ㄴ. 효를 행하려면 먼저 효의 이치를 올바르게 파악해야 하는가?
 - ㄷ. 격물치지의 수양은 하늘의 이치를 보존하기 위한 것인가?
 - ㄹ. 양지를 발휘해야 각각의 사물로부터 이치를 얻을 수 있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자연 상태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 전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공통의 권력이 강제적 힘으로서 존재해야 정의와 불의가 분별되기 때문이다. 을: 자연 상태는 인간 정신의 진화에 따라 사회 상태로 이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심화된 불평등과 무질서는 사람들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하에 뭉으로써 해결된다.
(나)	

- < 보 기 > —
- ㄱ. A: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소유권을 천부적으로 지닌다.
 - ㄴ. B: 주권자는 계약의 주체로서 계약 이행 여부를 감시한다.
 - ㄷ. B: 이성은 무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계약 체결을 요청한다.
 - ㄹ. C: 개인은 일반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시민적 자유를 얻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1.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우리는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이 각각 자기의 일을 수행할 때 그 국가를 정의롭다고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영혼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각각 자기의 일을 수행할 때 그 사람은 정의롭게 된다.

을: 우리는 항상 그 자체로 선택될 뿐 결코 다른 것 때문에 선택되지 않는 것을 단적으로 완전하다고 말한다. 행복은 단적으로 완전하다. 왜냐하면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인 행복은 언제나 그 자체로 선택되기 때문이다.

- ① 갑: 지혜는 이성의 지시를 따름으로써 갖춰지는 기개의 덕이다.
- ② 갑: 국가의 세 계층이 모두 철학자가 되어야 정의가 실현된다.
- ③ 을: 자제력이 있으면 실천적 지혜 없이도 품성적 덕이 생긴다.
- ④ 을: 자연에 대한 관조는 최고의 덕에 따르는 이성의 활동이다.
- ⑤ 갑과 을: 영혼의 올바름은 욕구의 소멸을 통해 이룰 수 있다.

12. 근대 한국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무위이화(無爲而化)는 사람이 만물과 함께 천리에 순응하는 우주 만유의 참된 모습이다. 일체의 사람을 한울로 인정하고 우마육축(牛馬六畜)을 천대하지 말아야 한다.

을: 우주 만유를 부처로 모시고, 우주 만유에서 고통(苦樂)의 근본을 찾으며, 우주 만유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 일원상(一圓相)과 같은 원만한 인격을 양성해야 한다.

병: 도수(度數)로써 천지를 정리하니 새 기틀이 열리게 된다. 이에 조화로써 천지를 개혁하고 후천선경(後天仙境)을 열어 고통에 빠진 중생을 널리 구해야 한다.

- ① 갑: 한울을 모시고 현세가 아닌 내세의 복락을 추구해야 한다.
- ② 을: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은 사회적 실천과 병행해야 한다.
- ③ 병: 무속 신앙을 배제하여 선천의 원한을 풀며 상생해야 한다.
- ④ 갑과 을: 만민은 봉건적 신분 질서를 바탕으로 화합해야 한다.
- ⑤ 을과 병: 물질문명이 정신문명을 이끄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13.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유일하게 올바르게 보편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의 목적은 이해 당사자들의 최대 행복이다. 쾌락과 고통을 측정할 때 강도, 지속성, 확실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을: 선악의 구분은 사회적 이익의 증감에 근거하며, 이 증감에 대한 승인이나 부인은 사회적 이익에 대한 우리의 관심 때문이다. 이러한 관심은 우리의 공감 능력에서 나온다.

- ① 갑: 쾌락의 양이 많아질수록 쾌락의 질은 항상 높아지게 된다.
- ② 갑: 사회 전체의 이익과 구성원들의 이익 총합은 같을 수 없다.
- ③ 을: 선악은 평가받는 사람의 성품에 내재하는 객관적 실재이다.
- ④ 을: 인과 추론은 선한 행위를 낳는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없다.
- ⑤ 갑과 을: 도덕 판단의 보편성은 공감의 원리에 의해 보장된다.

14. 중세 서양 사상이 갑, 근대 서양 사상이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영원법은 모든 것의 운동과 행위를 명령하며 신의 지혜를 보여준다. 자연법은 이성적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인데, 자연법의 첫 번째 명령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이다.

을: 자연에서는 자연의 질서를 위반하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모든 일은 영원한 필연성을 지닌 자연의 질서에 따라 일어난다. 신의 명령, 즉 신의 섭리는 자연의 질서일 뿐이다.

— < 보 기 > —

ㄱ. 갑: 영원법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다.
 ㄴ. 갑: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도덕 법칙이다.
 ㄷ. 을: 자연법칙은 초자연적 존재인 신의 명령과 일치한다.
 ㄹ. 갑과 을: 자연의 모든 사물은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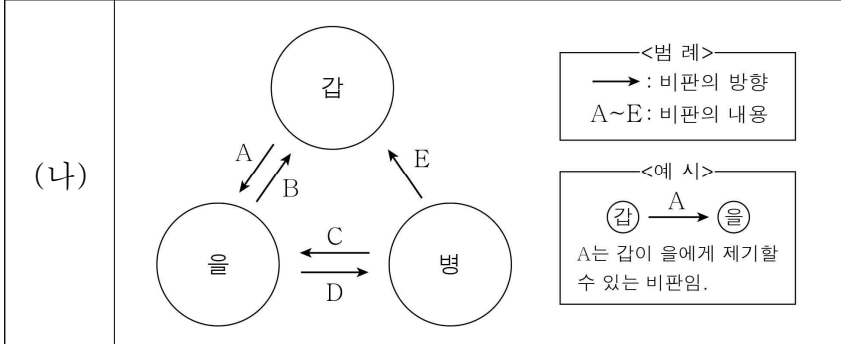
15. (가)의 한국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E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공자는 “음양은 태극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했으니 이(理)와 기(氣)는 일물(一物)이 아니며, 주자는 “이에 동정(動靜)이 있으므로 기에 동정이 있다.”라고 했으니 이와 기는 서로 발한다.

을: 공자는 “사람이 도(道)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니 기발이승일도(氣發理乘一途)가 명백하다. 기를 단속하여 기의 본연이 회복되면 본연의 이가 드러난다.

병: 공자는 “자신을 이겨 예(禮)를 회복하는 것이 인(仁)이다.”라고 했으니 인은 사람의 노력으로 성립하는 것이지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이 인을 사람의 마음에 끼워 넣은 것이 아니다.



- ① A: 정(情)은 연원의 차이로 사단과 칠정으로 나뉘어 간과한다.
- ② B: 이(理)는 작용성이 없기에 기를 주재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③ C: 인(仁)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본성임을 간과한다.
- ④ D: 성(性)은 편벽된 기질을 바로잡아야 선하게 됨을 간과한다.
- ⑤ E: 심(心)은 도덕성의 근원인 이법적 실체가 아님을 간과한다.

16. 고대 동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능력[良能]과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능력[良知]이 있다. 부모를 친애함을 인(仁)이라 하고, 어른을 공경함을 의(義)라고 한다.
 을: 사람은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한다. 이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바다. 성인(聖人)도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수양을 거듭한 뒤에야 덕을 완성하였다.

- ① 갑: 본래의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 본성을 교정해야 한다.
- ② 갑: 타고난 도덕적 기개[浩然之氣]를 발휘하면 의가 생긴다.
- ③ 을: 육구의 충족은 예(禮)와 법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을: 소인은 인위적 노력을 쌓아도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
- ⑤ 갑과 을: 하늘을 인륜의 근본으로 삼아 인의를 실현해야 한다.

17. 중국 불교 사사가 갑, 한국 불교 사사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근기(根機)가 낮은 사람이라도 밖으로 닦는 것을 믿지 않고, 단박에 깨치는 가르침[頓教]을 들어서 자기의 본성이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당장에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곧 견성(見性)이다.
 을: 이치[理]로는 단박에 깨침[頓悟]과 동시에 모든 번뇌가 사라지지만 실제로는 점차 없어진다. 옛 스승께서도 “범부가 곧 부처인줄 알았지만 법의 힘을 빌려서 익히고 닦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 ① 갑: 깨치는 능력이 낮은 중생은 번뇌의 제거가 불가능하다.
- ② 갑: 자기 본성이 부처임을 단박에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 ③ 을: 지혜는 자성의 본체[體]이고 선정은 자성의 작용[用]이다.
- ④ 을: 돈오한 이후에 비로소 생겨난 습기(習氣)를 없애야 한다.
- ⑤ 갑과 을: 경전에 의존하지 않으면 결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18.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사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경험적 요소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의무의 표상, 한마디로 도덕 법칙의 표상은 오직 이성을 통해서만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영향은 경험의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동기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래서 이성은 자신의 존엄성을 의식하며 경험적 동기를 경멸하고 지배할 수 있다.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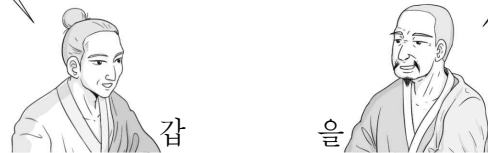
ㄱ. 도덕 법칙에 일치하는 행위는 반드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ㄴ.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의 감정은 도덕적 실천에 기여한다.
 ㄷ. 이성은 자신이 따라야 하는 원리를 스스로 세울 수 있다.
 ㄹ. 이성적 인간의 도덕은 일반적인 경향성에 근거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그림은 동양 불교 사사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모든 법(法)은 공(空)합니다. 열반조차도 공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열반은 유(有)도 아니고 무(無)도 아닙니다. 획득되지 않고 도달되지도 않으며, 단절하지 않고 상주하지도 않으며, 발생하지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므로 열반이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자아와 법을 임시로 세움으로 인하여 갖가지 모습들이 생겨납니다. 일체는 오직 식일 뿐[唯識]입니다. 분별을 본성으로 하는 식을 변화시켜 지(智)를 얻으면 모든 번뇌가 사라지게 되고, 이를 곧 열반이라 합니다.



< 보 기 >

ㄱ. 갑: 모든 법을 중도(中道)로써 파악해야 한다.
 ㄴ. 갑: 모든 법은 불변의 실체로서 연기(緣起)한다.
 ㄷ. 을: 모든 현상은 마음의 작용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ㄹ. 갑과 을: 모든 현상이 공임을 통찰하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20.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사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간은 고립되어서는 자족적일 수 없기에 국가에 의존해야 한다. 국가만이 인간의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을 이룰 수 있게 한다. 국가의 혜택을 타인과 더불어 누릴 수 없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는 짐승이거나 신이다.

< 보 기 >

ㄱ. 국가는 최상위의 공동체로서 최고선을 추구한다.
 ㄴ. 시민으로서의 좋은 삶과 개인의 좋은 삶은 무관하다.
 ㄷ. 개인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ㄹ.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인위적 계약의 산물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